

어둠 밝히는 등불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논서(論書)다. 대승경전에 실려져 있는 모든 사상을 종합적으로 회통(會通)하여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 대승의 본질을 밝혀 놓은 책이다. 이 논 저자 마명(馬鳴, Asvaghosa)은 생불연대에 관한 이설이 있으나 대체로 그의 활동시기를 기원 후 100~150년경으로 본다.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이 쓰인 때가 2세기 초반 무렵이 된다. 범어의 원전이 발견되지 않아 중국에서 찬술된 것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도 있지만 한역본으로는 진제삼장이 번역한 본과 실차난타가 번역한 두 본이 있다. 다른 논서들에 비해 내용도 매우 간략한 편이다. 전문이 한자의 글자 수로 말하면 만여 자이다. 진제번역본은 10728자, 실차난타역본은 10765자로 30여 자가 더 많다.

리고 수행을 권하고 이익을 말하는 권수 이익본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인연본에 들어가기 전에 삼보에 귀의하는 게송이 있다. 귀명계 혹은 귀경술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논주 마명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면서 눈을 짓는 뜻을 공손히 밝힌다. “목숨을

대승불교 개론서 <대승기신론>

2세기 무렵에 마명이 저술해

총 5분 나뉘... 귀명계로 시작

던져 귀의하나이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훌륭한 일 하시며, 두루 모르는 바 없어야 하시며, 활동에 장애를 받지 않으시며, 세상을 구하고자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여! 목숨을 던져 귀의하나이다. 그 몸의 바탕의 참모습인 법의 성품 그대로 참되고 한결같은 진리의 바다여! 목숨을 던져 귀의하나이다. 헤아릴 수 없

이 많은 공덕의 보고여 범답게 수행하는 구도자들이어!”

삼보에 귀의하는 지극한 예경을 올린 다음 눈을 짓고자 하는 뜻을 다시 밝힌다.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그릇된 집착을 버려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부처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하나이다.”

귀명(歸命)이란 보통 귀의(歸依)와 같은 뜻으로 보며, 범어의 어원으로 말하면 ‘namas’인데 이를 나무(南無) 혹은 나모(南謨)라 음사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뜻을 알아보면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귀투신명(歸投身命)으로 몸과 목숨을 던져 의탁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귀순교명(歸順敎命)으로 부처님의 교명(敎命)에 따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셋째는 환귀본명(還歸本命)으로 목숨의 뿌리 명근(命根)을 그 근본에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이 귀명계에서 부처님을 설명한 말을 요약하면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이어 모든 것을 두루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 라는 것이다. 또 활동에 장애가 없는 자유 자재한 분이요 했고 세상을 구원해 주는 대자비의 주인공이라 했다. 이는 부처님을 온 중생계 전체에 교화의 영향을 끼치는 우주적인 인물로 묘사한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아 얻은 지혜 자체에 인격적의

미를 부여하여 의인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부처님의 색신은 시간적으로 한정되거나 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대비의 마음이다. 동체대비를 실천하여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원력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못 생명의 의지처가 되어 환자의 병을 보살펴주는 훌륭한 의사의 역할을 해주신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대비심을 동체대비라 한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되어 온 누리를 밝혀주는 이가 부처님이요 이것이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된다.

이 귀명계에서 묘사한 부처님을 대승의 부처님이라 할 수 있다. 대승경전의 부처님은 인간적인 상황에서 오는 약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범신이 의인화되어 등장하는 부처님이므로 아함경 등에서 묘사된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 예를 들면 대승에서는 부처님이 몸이 괴로하여 사라불이나 가섭에게 대신 설법을 부탁하는 장면이라든지 부처님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흠의 뿌림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대승의 부처님은 색신이 완성된 모양과 빛깔로 이루어져 신체적 활동에 전혀 장애가 없으며, 어떤 상황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대화에 대해

불교의 경전구성은 대화체로 돼 있다. 명령과 계시, 주입적인 성경과는 전혀 다른 대화방식이다. 묻고 대답하고 대화를 통해 진리를 드러낸다. 원 주먹을 펴서 보이듯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논리와 표현을 갖춰 대화의 열린마당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는 또한 설법의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현실적으로 증합될 수 있는 성질의 내용과 둘째는 열반(궁극적 행복과 자유)으로 인도(渡渡)하는 성질의 내용과 다섯째는 지혜있는 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질의 내용으로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는 대화방식을 강조한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대화의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하겠 다. 대화의 단절은 이해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이해의 결핍은 오해와 언

수행자라면 비우고 버리며 떠나는 생활이 기본 덕목이 되어야 한다.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도 치러지는 게 아니라 봉행(奉行) 되어야 한다.

치러지는 것에는 주관의 타산법이 끼여있기 마련이지만, 봉행(奉行)에는 순수한 신앙심이 평화와 자유와 행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순수해야 하고 종교의식도 속임이 아닌 드러난 진리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전생의 빛, 삼재풀이 따위는 이제 경전중심으로 설법다운 설법에 의해 그 검은 그림자를 지워나가야 한다. 내용도 시원치 않은 설법을 하면서도 기를 쓰고 법상에 오른다던지 주장자를 높이 치켜세워야 설법의 품격도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했다면 그는 수행력은커녕 제도 받아야 할 중생일게 분명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길거리에서, 앉아서, 서서 중생들의 눈높이에서 원 주먹도 펴서 보이며 묻고 답하고 우월과 열등감 없이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대화의 첫 덕목은 주장이 아닌 배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연결된다.

하여, 대화가 없는 삶은 메마름을 더해가고 고독하여 우울증으로 빠져 든다. 대화의 첫째 덕목은 주장이 아니라 배려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팁서비스(tip-service)’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말로 배푸는 친절을 의미할게다. 그렇다 면, 입으로 말하는 친절은 죽은 친절 일 것이다. 몸으로 몸소 보여주는 실천이 백 마디 말보다 생명력이 있을 터이다.

사람은 사람일뿐이다. 손을 맞잡고 등을 어루만지며 격려해주는 눈빛, 응서해주는 미소, 사랑으로 가득한 몸짓은 또 하나의 살아있는 언어이겠기 때문이다. 승가(僧家)라는 말은 화합의 집단을 의미한다. 출가(出家)수행은 세속의 애착심을 접고 나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가져온 물질과 재산으로 사람이 운영되고 종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진대 속물근성의 아집(我執)부터 버릴 때이다. 선학원은 본래 뿌리가 조계종임에도 눈앞의 이해득실을 따져 버티는 모습이 매우 아깝다 못 한, 계도를 이탈한 몸짓들이다. 출가

불교의 삼보(三寶)는 부처님과 경전과 스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큰 자유가 부처님이고, 큰 평등이 경전이며, 큰 평화가 스님이겠기 때문이다.

불교의 방생(放生)은 비닐봉지에 담아 온 몇 마리의 물고기를 강물에 풀어주는 것보다 굶은 곳을 퍼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데, 그 참의미의 생명력이 있을 터이다.

어느 스님이 어느 사찰이나 수행단체에 초청되어 설법할 경우에도, 제발지 주최측에서 내미는 봉투나 물질은 사양하는, 진정된 의미의 법보시(法布施)를 실천해야한다.

땀땀하게 담당하게 여유있는 생활과 모습은 또 다른 언어이자 대화법이다.

‘팁서비스’라는 단어가 공염불(空念佛)과 혼용되질 않길 바랄뿐이다. 목탁소리도, 범종소리도 또 다른 언어이자 살아 움직이는 대화로 자유와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방편을 앞세운 변명보다는 경전정신을 되살리는 대화다운 대화라 그리운 오

‘보시’ 중요성 전하는 논장에 주목하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① <대장부론>은 무엇인가

흔히 불법(佛法)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한다. 그 많은 법문 가운데 계율이 가장 먼저 송출 됐다. 계율을 제정의 목적은 승단의 유지와 수행자의 생활 규범의 제정이기 때문이다.

가 의미도, 수행의 의미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불의 길은 한 가지인가? 그럴 리가 없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그 방법이며, 참선수행도 그 방법이며,

논사 제바라 보살의 <대장부론>

보살의 최고 실천행 ‘보시’ 강조

경전의 말씀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 씀을 사유하는 것도 그 방법이며, 역대 선지식의 논장을 참고하여 수행하는 것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특히나 대승불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살펴보는 성불은 개인의 성불이 아닌

모두의 성불, 즉 일체 중생과 더불어 성불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일체 중생의 성불은 어떤 실천 방법이 있을까? 그 실천 방법에 있어 이미 ‘육바라밀’이 경전에 제시되어 있다. 육바라밀은 단지 성불만이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 이 세상을 극락정토를 만드는 사상과 연계 되어 있다고 본다. 더불어 행복한 삶이다.

그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설명할 수많은 논장 가운데, 제바라보살의 <대장부론(大丈夫論)>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수대장경의 <대장부론>을 저본으로 해 원문을 번역하고 해설하여 성불의 의식과 실천행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장부론>은 제바라보살(提婆羅菩薩)이 지었고 북량사문 도태(北涼沙門道泰)가 번역하였다고 전해진다. ‘제바라보살’은 ‘제바보살’과 같은 동일인이다. 제바보살의 <대장부론>은 용수보살의 중관학파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아

먼저, 제바(提婆)는 2~3세기경 남인도 출신의 중관학파(中觀學派) 논사(論師)이며, 용수보살의 제자로 많은 기행(奇行)과 일화가 있다.

도태(道泰)는 <고승전> 권3에 간략히 기록한 것이 있는데, ‘사문 도태(道泰)는 뜻이 굳세고 과단성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총우(祐, 파미르 고원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고 기록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려 한다.

<대장부론>의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로 ‘보시’이다. 보시는 곧 보살행의 근간임을 제바라보살은 강조한다.

또한 ‘부처의 마음 쓰임’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부처의 마음을 쓰는 이가 곧 부처와 다름없는 이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보살행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실천행이 바로 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能成種智果 施因爲最大(능히 심은 대로 지혜의 열매를 맺기에, 보시의 인연이 가장 위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강료 : 7개월 교육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생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람을 찾습니다

- 성별 : 여자
- 나이 : 32세 갑자생 1984년생

이름은 미상이고 헤어질 때 경주 이씨라는 쪽지만 품에 넣었다 함.

헤어질 때 출생 후 4개월 정도였음. 32년전, 아기 할머니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법수선원에 주석하시다 열반하신 성수 큰스님을 친견 하러온 비구니 스님을 만나 사전에 협의하고 몇일 후 만나 아기를 맞겼다 함. 꿈에도 잊지 못합니다.

아가를 넘겨줄 때 품속 쪽지에 생일은 음력 2월 1일이고, 아버지는 이씨라고 써서 넣었습니다.

아시는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엄마 010-7553-8463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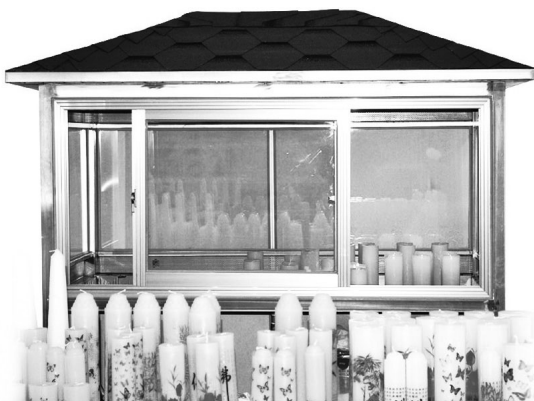
신제품

소이(SOY)왁스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0×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실외 양초 공양집



일본 직수입

산신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